옥천사 시왕도, 40년만에 제자리로

조계종 ·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 프랑스서 환수 '쾌거'

1970년대 도난됐던 옥천사 시왕도 중 한 폭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진성)는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된 '옥천사 시왕도'의 한 폭인 '제2초강대왕도'를 프랑스에서 환수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옥천사 명부전에 봉안된 '시왕도'는 모두 10폭으로 1744년 화승 효안(曉岸)의 주도하에 조성됐다. 조계종 중앙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1976년 11월 12일 '제1진광대왕도', '제2초강대왕도'가 도난돼 현재 8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나머지 8폭의 시왕도는 2010년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됐다.

옥천사 '시왕도'는 한 폭에 시왕 1위(位)를 묘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화면에는 용두장식 의자에 좌정한 시왕과 권속을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각 시왕에 해당하는 지옥 장면을 묘사했다.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의 초강대왕은 사후 14일에 만나게 되는 왕으로 초강(初江)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고, 초강을 건너는 망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개인소장자는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를 한국에서 체류하던 마지막해인 1981년에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구입해 귀국했다. 이후 35년동안 보존하다 최근 프랑스 기메박물관을 통해 문화재청에 알려졌고, 조계종은 도난 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중앙기록관에서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은 문화재청

시왕도 8점 모두 보물 지정돼
문화재적으로 높은 가치 가져

사찰박물관장 · 전문 학자 주도해
소장자 유상기증으로 우선 반환
해당 문화재 환수기금 불사 '필요'


옥천사 시왕도 '제2초강대왕도'.

국제협력과를 통해 프랑스 현지법 및 국내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소장자와 유상기증 사례로 문화재를 기증키로 협의를 이끌었다.

이 같은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옥천사의 성보 환수 원력이다. 기증사례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보 환수를 하겠다는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의 원력에 따라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과 불교미술학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추선 연휴도 뒤로하고 9월 12일 프랑스 현지로 떠나 협의를 진행했다.

원명 스님과 강 교수는 개인소장자의 '시왕도'를 감정하고 반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기메박물관 한국관의 피에르 깜봉 담당 학예사에게 문화재 반출 허용 여부를 타진했다. 깜봉 학예사는 "(문화재를)내줘도 좋다"는 자문을 내놨고, 이후 소장자는 9월 15일 유상기증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제2초강대왕도'는 구입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고, 현재 불화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지난 9월 23일 한국으로 이운된 '제2초강대왕도'는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안정화 작업 중에 있으며, 이후 옥천사로 이운될 예정이다.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옥천사의 도난 불교문화재가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3점이 돌아왔다.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난 문화재 환수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왕도 환수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다. 재원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문화재 환수에 종단뿐만 아니라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이번 환수를 바탕으로 종단은 사례에 따라 환수 방향을 다각화하여, 도난 불교문화재가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축구로 하나되는 종교화합과 평화 움직임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등 4대종교 성직자들은 9월 26일 서울 상암동 난지천축구장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기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시합에 앞서 불교팀 감독 지담 스님이 개신교팀 목사와 악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희론' 극복해야 화쟁 구현 가능"

김점란 소장, 9월 26일 '화쟁사상 이해를 위한 열린 세미나'서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9월 26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화쟁사상 이해를 위한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점란 붓다의 대화 연구소장은 '삶 속의 대화와 화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화쟁의 핵심을 '언어'로 규정, 희론을 극복할 때 화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상을 분별해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표현, 즉 희론서 벗어나는 것이 화쟁의 핵심과제란 뜻으로 풀이된다.

김 소장은 "희론은 실재하지 않는 자아 관념을 증폭시켜 내 견해에 집착하게 하고, 배타적 쟁론태도를 갖게 한다"며 "이러한 희론의 소멸은 전도된 인식을 깨고 사물의 연기적 성품 또는 공성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희론을 극복할 때 화쟁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희론서 해방된 자는 언어세계를 무아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 또 관행에 따른 일상 언어를 따르면서도 언어세계에 소유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며 "비로소 다투지 않고 담론할 수 있는 화쟁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왕근 붓다로살자 편집장과 신호승 화쟁위원은 각각 '토론과 화쟁'과 '사회적 대화의 원리로서 화쟁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아름 기자

"백남기 농민의 극락왕생 발원하옵니다"

조계사 분향소 설치 등 불교계 애도 줄이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노동자 및 일반 시민사회계는 물론 종교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와 붓다로살자는 9월 26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불시넷 및 붓다로살자 측은 "생명평화의 벗, 백남기 농민 추모에 불교신자 및 조계사 인근 시민들이 많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향소에선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불시넷 및 붓다로살자 회원들이 반나절씩 릴레이 기도를 펼칠 예정이다. 철거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

일정은 미정이며, 추후 장례 일정이 발표되면 논의될 예정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9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백 농민의 사망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하다"며 "우리는 정부에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9월 26일 '백남기 농민 죽음을 애도하며'란 제하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칠순이 다된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았기에 백 씨의 죽음은 더욱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면서 "이런 가운데도 경찰과 정부는 그 누구도 문책하지 않을뿐더러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 돌아가신 고인에게 그저 송구스럽고 죄스러울 뿐"이라 운을 뗐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317일간 힘들었던 육신의 고통을 끝낸 고인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발원한다"며 "정부는 고인의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자숙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히 보내드리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불교위원회(이하 자평통)도 9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백 씨는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이 지속한 농민생존권 박탈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민중대회에 참가했다"며 △더민주 · 국민의당 · 정의당은 즉각 박근혜 정권 탄핵조치에 돌입할 것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제안 · 요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회서 문화재 지진보호 대책 강구"

정세균 국회의장, 9월 28일 불교포럼서 강연

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이 9월 28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불교포럼에서 국회에서 문화재 지진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 주제 강연에서 "이번 지진에서 문화재 피해 중 불교문화재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불교계 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 문화재 복구를 조속히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문화재 정밀 실측 보고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주먹구구식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 국회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양극화 등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특히 청년대책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0대 국회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도전적 상황과 난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만큼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200여 회원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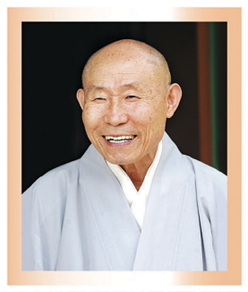
이시대 최고 선사들의 법문 대향연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명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참나'를 찾아가는 최상근기의 수행, 간화선에서 해답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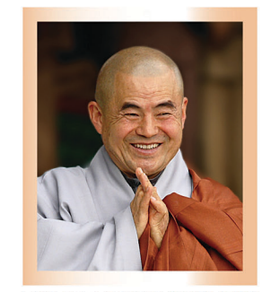
"심오한 깨달음, 정혜쌍수"

일시 : 2560(2016)년 10월 15일(토)~21일(금)오전 10시
장소 : 대구 동화사
문의 : 02) 922-9967 / 053) 980-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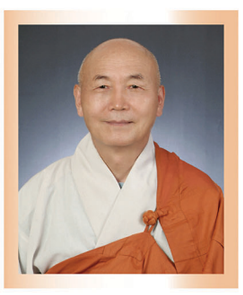
불기2560
간화선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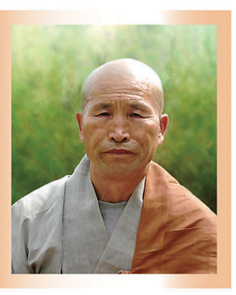

진제 법원 종정예하 (입재일,10월 15일)


금곡 무여 대선사(10월 16일) (봉화 축서사 선원장)


금아 혜국 대선사(10월 17일)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함주 월복 대선사(10월 18일)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금산 지환 대선사(10월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두암 현기 대선사(10월 20일)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


학산 대원 대선사(회향일,10월 21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주최 :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주관 : 동화사 · BBS불교방송 미디어주관 : BBS불교방송 · 한국불교대표방송 BTN